화순군, 동복댐 증축에 상생 모색… 반도체 소부장 유치 박차

동복댐 증축에 266가구 이상 이주
지역 부담 상응한 산업 발전 모색
동면 제3농공단지 조성 본격 추진
배후 주거단지 조성·정주 여건 개선
반도체 소부장 기업 유치 기반 강화


화순군청. /화순군

전남광주특별시 화순군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발맞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산업용수 공급계획이 화순 동복댐 증축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화순군은 국가 첨단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자원 공급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동복댐 증축 과정에서 화순군은 수몰과 주민 이주, 농경지 및 생활터전 상실 등 상당한 지역적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화순군에 따르면 동복댐 증축 시 약 522만㎡의 수몰면적이 발생하고, 이서면·백아면 등 2개 면 8개 마을에서 약 266가구 이상의 이주가 예상되며, 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희생과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화순군은 국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지역이 감당해야 할 부담에 상응하는 산업 발전과 경제적 혜택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소부장 기업 유치를 핵심 상생발전 전략으로 삼고, 산업용지 확보와 배후 주거단지 조성 등 기업이 투자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나서고 있다.

화순군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 유치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산업용지 확보와 배후 주거단지 조성 등 기업이 실제로 투자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또한 화순군은 특히 여주시와 SK하이닉스의 상생협약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여주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남한강 여주보 활용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2022년 11월 SK하이닉스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화순군 역시 동복댐 증축에 따른 지역적 부담을 반도체 소부장 기업 유치와 연계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 유치의 핵심 기반인 산업용지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화순군은 동면 운농리 일원에 약 290,469㎡(8.7만 평) 규모의 동면 제3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산업단지를 한꺼번에 조성하기보다는 기업 투자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용지 공급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정 부담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기업 종사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 조성도 병행한다. 산업단지와 주거단지를 함께 조성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기업이 투자처를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인 정주 여건과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화순군은 여주시와 SK하이닉스의 상생협약 사례를 참고해 반도체 기업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기업 수요 조사를 통해 분야별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력·용수·폐수처리·도로 등 기업 입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공급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임지락 화순군수는 "여주시와 SK하이닉스의 상생협약 사례처럼 용수 공급 지역에도 반도체 협력기업이 입주하고 산업생태계가 조성되는 실질적인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전담조직 운영과 산업용지 확보, 배후 주거단지 조성 등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화순을 서남권 반도체 산업의 핵심 배후 거점으로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라고 덧붙였다.

/화순(전남광주)=양수녕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충남,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총력전

도지사 본부장 범부서 대책본부 가동
도내 15개 시군 통합 지휘체계 구축

충남도가 서해안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응하기 위해 도지사가 직접 지휘하고 전 부서가 참여하는 최고 단계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도지사가 방제 최전선에서 직접 진두지휘하는 최고 단계 범부서 총력 대응 체계로 즉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도지사를 본부장, 행정부지사를 부본부장으로 하는 '범부서 대책본부'를 가동한다. 대책본부는 주민 홍보, 예산 확보, 생활권 위험목 관리, 드론 예찰, 법률 자문, 언론 홍보, 현장 안전 지원 등 7개 기능별 지원반으로 구성된다.

도내 15개 시군에도 통합 지휘 체계를 구축하고, 산림 부서뿐 아니라 재난·안전·홍보 등 관계 부서가 방제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예산 부족이나 복잡한 행정 절차로 현장 방제가 지연되지 않도록 도지사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고, 내년 5월 말까지 매주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박 지사는 앞으로 6개월을 재선충병 확산 저지의 마지막 기회로 규정하고, 내년 4월 말까지 선제적 집중 방제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드론·항공·지상 정밀 예찰로 신규 피해목을 조기에 발견하고, 주요 산림 보전 지역에는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한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경북도와 경북 앵커센터, 영남대 한일미래인재협력센터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일본 나라대학을 방문해 대학 중심의 한일 미래 인재 양성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 일본 나라현과 인재 양성 협력

일본 나라현청·현지 대학 5곳 방문

경북도가 일본 나라현과 대학 중심의 글로벌 인재 양성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한일 대학 교류협력단'을 상시 가동하고, 2027년 경북에서 '한일 대학 인재 협력 국제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경북도와 경북 앵커센터, 영남대 한일미래인재협력센터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나라현청과 현지 대학 5곳을 대상으로 인재 양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문단은 나라국립대학기구(나라여자대·나라교육대), 나라현립대, 나라대, 텐리대 등을 찾아 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과 상시 영상회의 운영, 공동 프로그램 발굴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각 대학의 교육·산업 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과 연구, 교환학생, 세미나 등 교류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경북도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일 대학 교류협력단'을 상시 운영하고, 2027년 경북에서 첫 국제포럼을 개최한 뒤 양 지역이 번갈아 행사를 열어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부산, 세계항구도시협회 총회 국내 첫 개최

내년 11월 2~5일 벡스코서 열려

부산시가 내년 11월 2일부터 5일까지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제22회 세계항구도시협회(AIVP)' 총회를 연다. 이 총회가 국내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고, 아시아 개최는 2002년 중국 다롄 이후 25년 만이다.

시는 현지 시각 지난 6일으로 프랑스 됭케르크 쿠르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회 총회 폐회식에서 차기 총회의 부산 개최를 공식 선포했다.

세계항구도시협회 총회는 각국 항구도시와 항만 관계자들이 모여 도시와 항만의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올해 총회는 '움직이는 도시와 항만, 이제 실천할 때'를 주제로 3일부터 6일까지 됭케르크에서 열렸다.

폐회식에는 오석근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차기 개최도시 대표로 나섰다. 오 부시장은 올해 개항 150주년을 맞은 부산항이 세계 2위 환적항으로 성장한 과정을 설명하고, 북항 재개발과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기반 구축 사업을 소개했다. 이어 참가자들을 부산 총회에 초청했다.

항구도시 간 논의가 2028년 6월 부산에서 본회의가 열리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로 이어지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도 밝혔다. /부산=김재남 기자 metrobusan99@

인천, 부평·주안 노후산단 재생 본격화

국토부 재생사업지구계획 최종 승인

인천시가 조성 50년을 넘긴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전면 정비하고 근로·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인천시는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이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돼 6일 최종 통보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0년 정부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 선정과 2021년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이후 기업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계획을 수립했다.

재생사업은 2027년 상반기부터 2029년 12월까지 국비 170억 원을 포함해 총 341억 원을 투입한다. 인천교공원 지하·노상 주차장 493면을 확충하고, 인천교 녹지 2만 1,274㎡를 정비해 인천교공원, 부평열우물숲과 연결한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지역 이모저모

시흥도시공사
월곶역세권 바이오도시 조성

시흥도시공사가 오는 18일 시흥시 월곶동 520-5번지 일원에서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약 23만5,780㎡ 규모 부지에 산업·연구 기반과 주거 기능을 결합한 '바이오션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기업과 연구인력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주거시설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각각 1,150세대씩 총 2,300세대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흥(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영양군
공공비축미 매입으로 쌀값 안정

영양군이 2026년산 공공비축미곡 688톤을 사들여 수확기 쌀 시장의 수급 안정에 대응한다. 수매 과정에서 품종 확인과 벼 품질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만큼 농가의 출하 준비가 매입 결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번 매입은 11월 9일 시작해 18일까지 진행되며, 전체 물량은 40kg 단위로 환산하면 1만7216포대에 이른다. 수매 대상은 삼광벼와 해담쌀벼 두 종류로 한정된다. 영양군은 정부관리양곡의 품질 관리 차원에서 출하 품종을 확인할 계획이다. 최종 매입 가격은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산지에서 거래된 쌀값을 토대로 정해진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목포시
'e호조+빌' 내년부터 의무화

목포시는 사업자의 대금 청구 편의를 높이고 회계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 1월 1일부터 전자 대금 청구 시스템 'e호조+빌' 이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자는 대금 청구 서류를 제출한 뒤 보완 여부나 지급 처리 상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e호조+빌을 통해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처리 상황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방문과 종이 서류 제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한다. /목포(전남광주)=이대호 기자 eogh7505@

하동군-아에로멕시코
하동녹차 세계화에 날개 달아

아에로멕시코가 오는 15일부터 인천~멕시코시티 왕복 항공편에서 하동녹차를 제공한다. 하동군과 아에로멕시코는 이를 위해 지난 4일(현지 시각) 멕시코시티에서 기내 서비스 도입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하동녹차를 제공하는 노선은 주 7회 운항한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국제선 탑승객에게 하동의 전통 차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과 멕시코의 문화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김현수 하동군수, 이주일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 김태종 하동군의회 운영위원장과 아에로멕시코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하동(경남)=박현철 기자 metrobusan88@